

공고 입학생 33% 공납금 지원

내년부터 자연계대학 95년까지 1만2천명 증원

정부 인력수급대책 발표

공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정부의 장학금 지급이 앞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입학생의 3분의1이 공납금 모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받게 되며, 해마다 수혜대상이 늘어나 95년에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똑같은 혜택을 입게 된다.

또 자연계 대학정원이 첨단산업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95년까지 해마다 2천4백명씩 늘어나는 반면 인문·사회계 및 예·체능계 정원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생산직 노동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까지 학비를 지원하되, 우선 3백인 이상 대기업부터 실시하도록 행정지도가 펼쳐진다.

정부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승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에서 확정한 이같은 내용의 '산업인력 수급대책'을 7일 발표했다. **<해설 4면>**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공업계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을 올해 6만 2천명에서 오는 95년 9만2천명으로, 공업계 전문대는 올해 3만7천명에서 95년 6만6천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제조업체 노동자들에게 야간대학 및 개방대학의 입학자격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병역면제 특혜를 확대하고, 산업체 부설대학 및 사내기술대학 수료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심사나 시험절차를 거쳐 정식학위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기근속 생산직 노동자에 대해 계장대우, 과장대우 등의 직위를 부여하되 정부투자 기관부터 우선 실시하며

근속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해 사회적으로 우대받으면서 기능장려금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